

野, 가슴기 살균제·어버이연합 등 청문회 공세

20대 첫 임시국회 오늘 개막... '여소야대' 협치 관건

맞춤형 보육·법인세 인상·노동 4법 등 쟁점 현안 산적

20대 국회가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첫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3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이끌어 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첫 결연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20대 첫 교섭단체 연설과 상임위별 업무보고 외에 쟁점별 청문회 개최 여부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간을 포함해 새로 구성된 '국회의 꽃' 상임위원회들은 이달 말까지 전체회의를 통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 진행 등 빠듯한 현안 점검 일정에 들어간다.

1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진행돼 온 이슈들로 여야 간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노위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노동4법'과 야당이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 관련 청문회 개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9대부터 이어져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야당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내용을 둘러싼 끼어들음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는 법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7월1일 곧바로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정부의 강행 의지가 뚜렷한 만큼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수년간 끌어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도 곧바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부위원회의 지방재정

개혁 논란, 매년 계속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정부위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된 산업은행 현안, 국토교통위원회의 신공항 타당성 조사 등이 이번 첫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임위 현안인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슴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호준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불대포 사건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등에 대한 청문회 이슈도 주요 쟁점 포인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상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이다. 다만, 가슴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의 필요성은 여당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더민주 '당권 도전' 송영길 호남 경청 투어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6일부터 5일간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두 번째 '호남 경청투어'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 기간 동안 경기도 호남 향우회 영암 방문과 '김대중·노무현 모내기' 행사에 참석했으며 장성·담양·곡성·함평·영광 등을 돌며 지역 여론을 들었다.

특히 송 의원은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 18일엔 핵심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무등산 정상에 오르며 '지위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호남 정신을 되새겼다.

송 의원은 "호남은 오랜 시간 가장 선진적인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왔고,



정권교체의 열망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당, 제야당에 만족하지 않고 힘 있는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엇보다 호남의 진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19일 잠시 경북 의성에 들러 마는 밭에서 농촌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벌인 뒤 다시 호남으로 돌아오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여수에서 열리는 광주 핵심당원 연수회에 참석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백재현 "특권의 상징 '국회의원 배지' 폐지하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9일 소위 '금배지'로 불리며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 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



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고 공개제안했다.

또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 여야, 국회 주도권 경쟁

여야 3당이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다. 21일엔 더민주 김중진 비상대책위 대표, 22일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차례로 연설에 나선다.

여야 3당 모두 20대 국회 첫 시작인 대표연설에서 내년 대선 국면까지 끌고 갈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며 6월 국회 초반부터 불꽃 튀는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노인복지, 안전한 대한민국, 정치권 신뢰 회복 등을 화두로 삼아 연설문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진 비대위 대표는 전체 연설 비중의 70~80%를 경제에 할애하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책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자금지원 방식으로, 차후 부채가 쌓여 폭탄으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불안사회'로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내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 진단 부분에서는 구의역 사고, 가슴기 살균제 사태 등에서 드러난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질타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네팔공항 환영받는 文 네팔로 떠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소식이 현지인 트위터에 통해 전해졌다. 네팔의 영화감독인 디네시 디시(Dinesh DC)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한 소식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카트만두 공항에서 환영받는 문 전 대표. <트위터 캡처>

새누리 '복당 내홍' 수습 국면

김희옥 비대위원장, 정진석 사과 수용... 당무 복구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집기 사흘만에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상옥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통합과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고심 끝에 대승적으로 혁신비대위의 소임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울러 김 위원장을 보필할 새로운 사무총장을 인선하고, 20일 오전 혁신비대위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지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탈당과 복당 승인' 과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지난 16일 혁신비

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의 복당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과 이후 당 내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겠다고 수차례 제안하고, 이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혁신비대위 정례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정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당 내분 사태는 '병합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결과 지켜보자" ...자세 낮춘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지지율 두달새 10%P 하락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파동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던 국민의당이 당분간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 그동안의 대응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 창구도 줄이고 반응도 신중하게 내놓기로 했다. 당장, 국민전환을 위해 나섰던 진상조사단을 활동을 개시한 지 3일 만인 지난 16일 "당으로 유입된 자금이 없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당 차원에서 나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동을 놓고 당내에서 서

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사분오열된 분위기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도 신중 대응기조로 돌아서는 배경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급전직하하는 당 지지율은 국민의당 지도부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3.1%p)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도는 15%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9~21일 25%를 기록하며 창당 후 최고점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두 달 새 10%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25%의 지지율을 기록한 더민주와의 격차도 10%포인트로 늘었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여서 국민의당은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2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북구 임동 주택 건물27평 토지48평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예정지역. 투자최적 ▶ 감정가 9천8백만원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근린주택 건물7평 토지54평 코너위치 1층점포,2층주택 ▶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1억5천3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건물중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8백(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가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서구 화정동 가스충전소 금호월드인근 건물42평 토지301평 투자가치우수 ▶ 최저가 17억1천만원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9평 토지 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만리 전원주택아임구 도로점 임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점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최고의 명분! 최고의 투자처!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무엇일까? 개발지란 무엇이고, 왜 개발지가 매력인가? 토지 투자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 공개합니다.

부동산 토지 재테크 무료 세미나

강의 내용	◆ 토지시장 현황과 전망 ◆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 ◆ 미래가치 뛰어난 투자 유망지역 ◆ 최고의 명분 있는 유망지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최고의 물건지 고르는 법 ◆ 최고의 값이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지역 직접 공개
강사	◆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 현지 실전 전문가

일시: 6월 20일(월) 1부 오후 2시~4시 / 2부 오후 7시~9시
장소: 광주시 남구 월산로 154 가람빌딩9층 (돌고개역)

부동산토지재테크 상담소
예약전화 ☎ 062)576-7955